

포스코, 중소 공급사와 상생경영 강화

포스코(회장 이구택)는 2월 7일(수)과 8일(목) 포항과 광양에서 각각 2007년 상반기 베네핏셰어링(Benefit Sharing) 과제 추진 킷오프 미팅을 갖고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다짐했다.

공급사 대표와 박한용 상무, 사용 부서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킷오프에서는 52개사가 응모한 70개 과제 중 사용 부서에서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 선정한 24개사 26개 과제에 대한 발표를 듣고 토론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주로 환경오염 방지와 원가절감, 에너지 절약, 생산성 향상, 국산화 개발 등으로, 이들 과제가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공급사는 물론 포스코의 경쟁력 향상에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포스코는 2006년 하반기에 성과가 도출된 19개 공급사의 23개 과제에 대해 총 18억여원을 보상했다.

이번에 범우화학은 포항제철소 2냉연공장에서 사용하

는 압연유 원료를 국산화해 1억 3000만원의 단가보상을 받았으며, 세창엔지니어링은 광양제철소 냉연 CGL 방사선 튜브(Radiant Tube) 수명을 연장해 1억 1600만원을 현금으로 보상받았다.

포스코가 2004년 7월부터 시행해 온 베네핏셰어링 제도에는 그동안 124개사가 참여해 186개 과제를 수행했으며, 보상금액은 50개사 69개 과제 128억여원에 달한다. 이 제도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대표적인 모델로 부각되어 2005년 중소기업협력대상과 2006년 은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포스코는 베네핏셰어링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질적·양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사뿐 아니라 사용자·구매 부서에서도 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상 품목도 단가계약 품목에서 스폿(Spot) 품목으로 확대했다. 과제추진 방법도 6시그마 방법에 QSS와 즉실천 방법으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동정

호남권 방사선지역전문가단 워크샵 개최

호남권 방사선지역전문가단은 2월 23일(금) 조선대학교 공대 제1공학관 17층 세미나실에서 호남권 방사선지역전문가단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후원으로 실시한 이번 워크샵에서는 호남권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소방안전본부)와 호남권 방사선지역전문가단으로 이루어진 교육기관, 의료기관, 산업체, 업무대행업체 방사선안전관리자들이 참가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등 취급, 사용, 운반 등으로 인한 방사능 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신속한 초동 조치를 하기 위한 각

기관의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호남권 방사선지역전문가단장인 정운관 교수(조선대 원자력공학과)는 원자력발전소에 비하여 국내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3,000여개 이상이 되는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기관에서 방사능 사고시 초동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안전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운영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금번 워크샵에서는 각 기관의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 현황과 사고사례, 대응방안 등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발표



를 하였다.

▲호남권 방사선지역전문가단 운영 및 진행사항(강명원/전남대학교) ▲의료기관 방사선안전사고 대비 대응사례(박래후/조선대학교병원) ▲대학 방사선안전관리 현황(김동혁/원광대학교) ▲비파괴검사에 있어서 방사선안전관리(김용술/한국공업엔지니어) ▲방사선지역전문가단 현황 및 향후계획(권정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지방자치단체 재난구조 인력은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번 워크샵을 통하여 방

사선 분야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이 분야가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관심과 방사선 비상대응 연락망의 구축이 필요하고 지역내의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시설에 대한 파악과 방사능 안전 교육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권역별 방사선지역전문가들을 활용하여 방사능 사고시 초동 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고 물품 지원 및 장애훈련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방사능 사고 발생시 각각의 사고에 차분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고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방사선지역전문가단”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의해 결성된 자원봉사활동조직으로서 방사선원사고 및 테러 등의 비상시 각 지역에서 초동초치등의 지원을 통하여 방사선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공 : 강명원 (전남대학교, 본 협회 명예기자)

